

간추린 청렴 소식

[1] 대검, '2025년 자체청렴도 측정 계획' 송부



대검찰청 감찰부는 청렴시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각 청 모니터링을 통한 검찰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2025년 자체청렴도 측정 계획'을 전국 청에 송부하였습니다.

각 청 청렴업무 담당자분들! 올해도 화이팅입니다^^

[2] 대검, 전국 청 '청렴 업무 담당자 교육' 실시

대검찰청 감찰부는 2025. 2. 24. ~ 2. 25. 일선 청 청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체청렴도 평가제도 설명 및 클린콜 사례 소개, 반부패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분임토의를 통해 청렴도 향상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3] 성남지청, '민원 환경 개선'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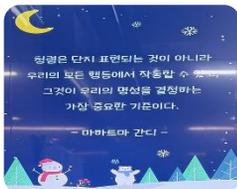


성남지청은 민원처리 절차 안내 등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자, 안내문 내용을 개선하고 배너를 제작하여 비치하는 등 민원 환경 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늘 민원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

[4] 서울남부지검, '청렴문구 소개' 실시

서울남부지검은 매일 아침 '청렴 Morning 음악방송'을 통해 청렴 표어 또는 명언을 소개하고, 매일 화장실 및 승강기 청렴 문구를 교체하였습니다.



즐겁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일상에 스며드는 청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2024년도 자체청렴도 측정결과

대검찰청 감찰부는 전국 60개 지검, 지청을 대상으로 '2024년도 자체청렴도' 그룹별 측정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룹	대상	우수 청
1그룹	7개 지검	대구지검
2그룹	5개 지검	서울북부지검
3그룹	6개 지검	창원지검
4그룹	10개 지청	대구서부지청
5그룹	16개 지청	평택지청
6그룹	16개 지청	논산지청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검찰이 되기 위해 2025년에도 청렴 실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 읽고, 느끼며

생각해보기 인생 명언

人生天地之間，若白駒之過隙，忽然而已

(인생 천지시간, 약 백구지 과극, 흘연이 이)

«장자(莊子)» <지락(知樂)>

인생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것이니,
마치 흰 망아지가 문틈을 스쳐 지나가는 것과 같아,
순식간에 사라질 뿐이다.

새해를 맞이하며 서로 한 해의 복을 기원해주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이라니, 시간이 점점 더 빠르게 지나감을 실감하게 됩니다.

스치듯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언젠가 해야지” 하며 미뤄둔 일들은 어느새 과거가 되고, “조금만 더 있다가” 하며 머뭇거리던 순간들은 놓쳐버린 기회가 되어 사라져 갑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을 타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헛되어 보내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어떨까요? 짧은 인생 속에서,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는 것은 온전히 우리의 몫이니 말입니다.

봄을 맞아 알아보는 청렴을 상징하는 꽃



매화(梅花)

추운 겨울에도 가장 먼저 피어나 봄을 알리는 매화는 찬 서리를 견뎌내고 꽃을 피우는 모습이 마치 청렴한 선비의 기개와 같아, 예로부터 고고한 절개와 청렴의 상징이 되어왔습니다.



나의 평생 소원은 매화처럼 사는 것,
서리와 눈 속에서도 기품을 지키는 것

- 정약용(丁若鏞, 조선실학자) -

연꽃(蓮花)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맑고 깨끗한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속세의 때에 물들지 않는 군자의 청렴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꽃입니다.

더러운 못 속에서도 그 빛을 잃지 않으니,
이는 곧 군자의 도리라

- 이규보(李奎報, 고려문신) -

난초(蘭草)

은은한 향기와 고결한 자태로 군자의 덕목과 청렴을 상징하는 식물로 여겨져 온 난초는 속세의 부정에 물들지 않는 고고한 인물의 상징으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난초는 한 줄기 바람에도 향기를 잃지 않으니,
군자의 마음 또한 이와 같아야 하리

- 김인후(金麟厚, 조선중기문인) -

이 외에도 청렴을 상징하는 식물들은 대나무, 소나무 등과 같이 본연의 모습을 굽히지 않거나 깨끗하고 단정한 특성을 가집니다. 다가오는 봄에는 자연을 벗삼아 의연하고 인내하는 성숙한 삶의 자세를 되새기며 청렴한 마음가짐을 다져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사진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상식이 쑥쑥! 선물이 팡팡! 청렴 퀴즈 이벤트



다음 질문의 답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조선시대에는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 당시 소송은 모두 문서를 통해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이 때 오늘날 변호사처럼 백성들을 대신하여 소장을 작성하는 등 소송을 해주며 억울한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 ① 외지부 ② 율관

※ 힌트 : Monthly청렴 2025년 2월호를 참고하세요~

정답을 보내주신 대상자 중 **3명**을 추천하여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을 경품으로 보내드립니다.

정답과 주소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 응모기간 : 2025. 3. 16.까지
★ 응모방법 : 700spo69a@spo.go.kr

2월호 퀴즈 정답은 ③ **을사년** 입니다.
정답자 중 아래의 3명을 추천하여
소정의 선물을 보내 드렸습니다^^



축! 당첨 이OO(경주), 차OO(서울중앙), 민OO(외부)



민원인의 목소리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서 문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 제천지청 열람등사(재판중) 담당 직원의 친절함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민원인 의견이었습니다 ♪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잘 응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천안지청 범피해자지원 담당 직원의 세심함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민원인 의견이었습니다 😊

일반인 입장에서는 낯선 용어들도 있고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 보다 성의 있게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원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아요!

청렴, 맑고 깨끗하고 향기롭게